

## 이집트, 공기업 민영화 작업 보류

이집트 정부는 경제 침체를 들어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을 당분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의 제임스 올펜손 총재는 10월 초 이집트 방문 중에 이같은 이집트 정부 방침을 논의받고 이에 동의하였지만, 공기업들의 경영개선과 은행업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집트 정부에게 확인시켰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의 이집트 지원 전략은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성장을 핵으로 삼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은 IMF의 승인이 나면 올해가 가기 전에 1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계획이며, 세계은행의 민간부문 지원기구인 국제금융공사(IFC)는 2001년에 대 이집트 투자를 470백만 달러로 늘렸는데 이로써 이집트는 중동 최대의 IFC 지원 수혜국이 되었다.

미국도 중동 최대의 친미 국가인 이집트의 안정 지원과 대 이라크 공격시의 협조를 위해 원조를 계속하고 있으며 원조액은 군사차관을 포함하면 매년 20억 달러에 이른다.

이집트 정부가 1991년에 개시한 민영화계획으로 314개의 공기업 중 84개, 정부가 지분을 일부 보유한 은행 15개가 지금까지 민영화되었다. 정부의 공기업청(Ministry of Public Enterprises)은 10월 초에 Export Development Bank of Egypt(정부 지분 75.6%), Trade & Development Bank(91.9%), Alexandria Commercial & Maritime Bank(54.9%), Al-Shams Housing & Development Bank(84%), 그리고 Suez Cement(17.8%)의 민영화 준비 작업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임연구원 강준수(☎3779-6645)

E-mail : jkang@koreaexim.go.kr